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고	2025.1.21.(화) 조간	배포	2025.1.20.(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부국장	박근태	(02-3145-8610)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담당자	수석	김갑제	(02-3145-8615)

국내·외 투자자가 재무분석에 활용하는 XBRL*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

[주요 내용]

□ **(개요)**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올바른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美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IFRS** 적용 他 국가에서도 활용가능한 국제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美 SEC) Edgar Filer Manual, (美 XBRL 협회) XBRL US GAAP Taxonomy Preparers Guide, (IFRS재단) A preparer's guide(Using the IFRS Taxonomy) 등

② 미국·유럽 등의 경우 상용 XBRL 프로그램과 외부 자문법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칙중심**의 가이드만 제공될 수 밖에 없으나,

-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한 특성상 제출인이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①회계기준, ②XBRL 주석 모범사례*와 ③유의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주요 계정에 대한 표준계정과목 등 선택 요령 안내(재무제표 작성 관련 주요 계정 과목 매핑 사전 제시), ②주석 작성 관련 모범사례 예시 등

** ①상장사 등의 주요 오류 유형 및 조치 필요사항, ②계정과목 및 주석 표 확장 관련 작성 지침(영문명 입력 방식, 행·열 구성 방식 등)

□ **(기대효과)** 동 가이드는 **XBRL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출인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향후 기업의 자체적인 XBRL 주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 주요 상장사(14개社)로 구성된 'XBRL 데이터 품질 자문그룹'에서 XBRL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평가

- 또한, XBRL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現 XBRL 주식 공시 방식을 변경*하려는 국가가 동 가이드를 활용함에 따라, 재무데이터 국제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 * 유럽의 경우 각 주식의 세부항목(표, 문장 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내용 전체(주식 목차 단위)를 하나의 데이터로 기계가 인식하도록 작성하고 있음
- 국내·외 투자자가 고품질의 XBRL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XBRL 데이터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실무교육 제공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 우리나라 XBRL 공시 체계를 적극 홍보하고 글로벌 디지털 리포팅 선진화를 위하여 해외 금융당국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습니다.

I 제정 목적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사의 재무정보를 국제표준 (XBRL) 데이터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中
 - '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 XBRL 주식공시(2조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법인 대상)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 XBRL 작성 규칙 미준수(계정과목 상·하위 관계 설정 관련 오류, 서로 다른 계정과목에 동일한 ID 부여 등), 감사보고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입력 등
 - IFRS 표준계정과목 체계(택사노미*)를 활용한 XBRL 주식 작성 방식이 기업 및 자문법인에 따라 상이하여 기업 간 주식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는 측면
 - * 택사노미(Taxonomy) :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계정과목별 명칭, 표시순서, 계산식 등을 계정과목의 속성을 전산파일 형태로 정의한 표준계정과목 체계

- 이에 따라, 신규 XBRL 주석 공시 대상 상장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XBRL 재무 데이터를 생성·유통시킬 수 있는 XBRL 생태계 조성 필요성 지속 제기

⇒ 상장기업 등의 올바른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요약(12월 결산법인 예시)

구분	최초 적용시기(비금융업)			최초 적용시기(금융업)		
	'23년도 사업보고서 (24년 3월 제출)	'24년도 사업보고서 (25년 3월 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6년 3월 제출)	'25년도 반기보고서 (25년 8월 제출)	'26년도 반기보고서 (26년 8월 제출)	'27년도 반기보고서 (27년 8월 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최초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두번째 적용그룹	세번째 적용그룹	네번째 적용그룹
	2조원 이상 (기시행)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0조원 이상	2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2조원 미만
	156社	340社	1,825社	27社	14社	93社

※ 직전 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 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23년도 결산기준 예시)

II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가이드 주요 내용

✓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는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요)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美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기본으로 참고하고,

* (美 SEC) Edgar Filer Manual, (美 XBRL 협회) XBRL US GAAP Taxonomy Preparers Guide, (IFRS재단) A preparer's guide(Using the IFRS Taxonomy), (XBRL 전문서적) The XBRL Book

- 금감원 XBRL 재무제표 작성기 등 DART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무 작성 예시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

- (가이드 구성) 전체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 (☞ 붙임 'XBRL 주석 작성 관련 가이드 예시(제5장)' 참고)

- 특히, 제출인이 보다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①회계기준, ②XBRL 주식 모범사례*와 ③유의 사항** 등을 반영

* ①주요 계정에 대한 표준계정과목 등 선택 요령 안내(재무제표 작성 관련 주요 계정과목 매핑 사전 제시), ②주식 작성 관련 모범사례 예시 등

** ①상장사 등의 주요 오류 유형 및 조치 필요사항, ②계정과목 및 주식 표 확장 관련 작성 지침(영문명 입력 방식, 행·열 구성 방식 등)

- 또한, 제출인이 쉽게 XBRL 주식 모범 공시 양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 사용 방법도 함께 기재

전체 가이드 구성 요약

구분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I. 가이드의 제정 목적 II. 가이드의 구성 III. 용어의 정의	· 가이드 제정 목적과 가이드의 구성을 설명하며,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
제2장	I. XBRL의 개요 II. 택사노미(Taxonomy)란 무엇인가? III. 인스턴스(Instance)란 무엇인가?	· XBRL의 주요 개념과 XBRL 공시를 위한 분류체계인 택사노미(Taxonomy), XBRL 공시 정보(Fact)의 디지털 문서인 인스턴스(Instance) 등을 설명
제3장	I. XBRL 도입 배경 및 경과 II. DART 택사노미(Taxonomy) III. 금융감독원 XBRL 공시시스템	· 한국의 XBRL 제도의 발전과정 및 해외 사례, DART 택사노미(Taxonomy)와 XBRL 작성기 등 XBRL 공시시스템 설명
제4장	I.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 II. 재무제표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 XBRL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제5장	I. 재무제표 주식 작성에 관한 금감원 공시제도 II. 재무제표 주식 작성 원칙 III. 재무제표 주식 작성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 XBRL 재무제표 주식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III

기대효과

- 동 가이드는 **XBRL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출인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향후 기업의 자체적인 XBRL 주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이 기대*

* 동 가이드 제정을 위해 주요 상장사(14개社)로 구성된 'XBRL 데이터 품질 자문그룹' 을 통해 의견 수렴

※ 일반적으로 해외 지침의 경우 XBRL 전문가를 대상으로 XBRL 기술적 사항과 원칙 등을 나열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XBRL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現 XBRL 주식 공시 방식을 변경*하려는 국가가 동 가이드를 활용함에 따라, 재무데이터 국제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 유럽의 경우 각 주식의 세부항목(표, 문장 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내용 전체 (주식 목차 단위)를 하나의 데이터로 기계가 인식하도록 작성하고 있음

- 국내·외 투자자가 고품질의 XBRL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본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여겨짐

IV

향후 계획

- **상장사 XBRL 재무데이터 품질점검 강화(연중)**

- 글로벌 재무정보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상장사 XBRL 공시에 관한 품질점검 강화

※ 금융감독원 주요 점검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및 XBRL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등을 통해 즉시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할 예정
- ① 필수 디테일태깅(Detail Tagging) 항목 누락, 표준 주식 목차(Link Role) 미사용, 과도한 사용자 확장 항목(주식목차, 행·열 등) 발생
- ② DART 택사노미(Taxonomy) 제시 표준 행·열 구조를 무시하고 주식 표(행·열)를 구현한 경우 등(→ 가이드 제 5장 'Ⅲ. 재무제표 주식 작성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참조)

□ XBRL 작성 실무교육 지속 실시(연중)

- 유관기관, 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 주석) 작성 실무교육 제공

□ 우리나라 XBRL 공시체계 홍보 및 국제 공조 강화(연중)

- 우리나라 XBRL 공시 체계를 적극 홍보하고 글로벌 디지털 리포팅 선진화를 위하여 해외 금융당국 등과 긴밀하게 소통*

*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재단)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및 국제XBRL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DART XBRL 재무제표 본문·주식 작성 가이드

2025. 01.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